

각 종단 지도자 봉축 범위

더도 덜도 아닌 불멸의 참모습 온누리에

법전 조계종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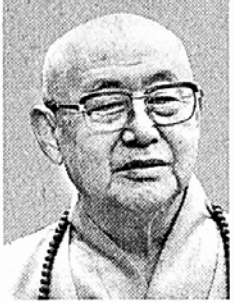


생명의 참모습은 천지에 가득해 하늘도 이를 덮어 버릴 수 없고 허공도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여(眞如)의 참된 모습은 원래 자유스러워 얽매임이 없고 차별이 없으며 평등(平等)하고 시종(始終)이 없는 까닭에 생명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원래 속박이 없는 대자유인(大自由人)입니다. 하지만 중생을 위해 다시 얽매임 속으로 들어가 방편으로 부처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곳곳에 태어나셨으나 나시는

중생이 부처로 탄생되는 날

바가 없으며 곳곳에서 멸도(滅度)하셨으나 진실로 멸한 바가 없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불멸의 참모습이 온 누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밖에서 찾을 것이 없으니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여래(如來)를 봅시다. 우리 곁에 있는 중생이 살아 있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의 마음에도 부처님이 계시니 귀천(貴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도 만법(萬法)이 있고 무진장의 보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남을 해치는 것은 지옥을 만드는 일이고, 중생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하심(下心)하여 만물을 기쁘게 하는 날이요, 중생이 부처로 탄생되는 날입니다. 억!

덕암 태고종 중정



부처님께서서는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써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광명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만을 고집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 하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고 다툼과 분열,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자연을 내몸처럼

이제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내세우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나친 이기심과 욕심도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할 수 있는 것이며 함께 어울려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인연이며 이 인연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크고 소중한 인연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생명을 다 같이 위하시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생명도 우리 인간과 똑 같이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체대비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생명과 자연까지도 내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용 천태종 중정



우리가 진실한 불자로 거듭날 때 부처님오신날의 등불이 환히 밝혀집니다. 현재는 순식간에 과거가 되고 미래는 어느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존재는 인연속에 있고 세월은 존재 속에 있습니다. 이 도리를 바르게

온갖 풀위에 백화가 피네

보십시오. 이제 이 사바의 땅에 부처님이 오십니다. 불화의 갈등은 사라지고 자비와 평화가 누리에 가득합니다. 부처님을 부처님 자리에 바로 모시고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제대로 보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후후에, 마왕의 붉은 깃대가 꺾이고 정법의 당간이 올라가누나. 물은 산위로 거꾸로 흐르고 온갖 풀위에 백화가 피어 오르는 구나 들(曲)!"

헤일 진각종 총인



천지는 동근(同根)이고 만법(萬法)은 일체라. 만법 하나하나를 크게 하나로 이어주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우주 운행하는 큰 소식을 깨달아야 우리의 생활이 뿌리깊은 나무처럼 생기고 기운이 왕성하게 됩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살려낸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보는 것에서 안으로 자신의 근원을 살펴야 합니다. 진실과 지극한 선(善)

이젠 여러분이 心印 밝힐때

은 밖에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깊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생명력이 느껴질 때 그것을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깨치는 마음을 일컬어 심인(心印)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본심으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자성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밝히려 나가는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인은 여섯 자로 이루어져 육자진언이라 합니다. 이 육자의 다라니는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심인을 밝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오시는 자리이며, 여러분의 심인을 밝히는 그 때가 불법이 있는 때임을 명심하십시오.

정대 종단협 회장



지금 이 순간에도 소의와 갈등, 테러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와 이념의 이름으로 인종과 민족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현실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불자들은 불교인의 양심과 도리의 입장에서 지역 분열을 화합으로, 분단을 통일로 거듭나기

모두 함께 마음·지혜의 등을



우리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창조하느냐 아니면 실의와 타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자들은 보다 겸허하고 성숙된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풀어나가자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육망과 분노, 우치와 삼독심을 몰아내고 반야의 대광명을 높이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신심 더 발현 참나의 자성을



팔만사천 법문을 다 꿰뚫고 있다 하여도 하나의 실천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신심이오 정진입니다. 실천이 따르는 신심과 정진이 있어야 바른 수행법이라 할 수 있고, 바른 깨달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등불로써 나의 신심을 더욱 발현시키고, 참나의 자성(自性)을 밝혀 나갑시다.

번뇌 털고 연꽃 피우시길



제불통계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약 하셨습니다. 제악막악의 제약이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관념적인 죄업이 아니라 부처의 본성에 일고있는 미세한 번뇌의 파장까지 모두 없애야 비로소 모든 선을, 부처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미세한 번뇌까지도 털어내고 부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을 가득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인연법 깨닫는 날 되세요



인드라의 구슬처럼 내가 베풀면 그 고마운 인연고리가 진실한 인연고리로 되돌아와 새로운 삶이 되어 상생의 관계가 되어 더 큰 인드라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오늘이 세상 이 몸 한 시절 우리 모두는 한송이 꽃이면서 장엄세계의 일체입니다. 이 시대 함께 태어난 인연 이땅에 함께 사는 인연, 부처님 오신날 함께 하는 인연법을 깨닫는 것이 초과일을 성스럽게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상생의 삶 살 길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인류 최대의 축제가 국가적 대사인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적극 협력하여 이 대회가 화합과 평화의 축제가 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지와 탐욕을 여의고 새로운 깨달음과 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그리하여 대립과 갈등이 없고, 기아가 없고, 파괴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

세존오시니 광명 얻도다



日出東方天地明 世尊出世衆生明 해가 동쪽에서 뜨니 천지가 밝고 석가세존께서 세상에 오시니 중생이 광명을 얻도다
日出光明草木生 人間出世智慧長 햇빛이 비치니 나무와 풀이 자라고 인간이 세상에 나니 지혜가 두렵다.

중생도 함께 성불하는 날



산하대지에 꽃피 내리면 산하대지에 한빛의 방광 천상천하에 유아독존님 나투시어 일체중생의 생노병사에 탐진치의 고해 인연연회로 얽매어서 고통의 여생을 다 보내니 신탈태자 출가육년의 고행 견성성불의 대도무문을 활짝 여시고 일체의 중생을 다 성불의 길 반자의 연등을 밝혀 인로보살로 인도한 오늘 부처님오신날, 우리 중생도 다 함께 성불하는 날.

서로 부처님 되어 드리세요



부처님께서서는 삼독에 가리 어 불성을 잃고 병들어 고해에서 해매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길잡이로서, 병든 환자에게 여신 의사처럼 이 사바세계에 나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본연의 모습을 지켜 가는 것이 불자요, 불공입니다. 만나는 분마다 서로서로가 부처님이 되어드릴때 이 세상은 평화롭고 생명있는 모든 존재들이 더불어 안락하고 동체대비의 진정한 불국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중도의 가르침 되새겨야



지금 세상은 자본화 우월주의를 외치는 오만과 갈등으로 인한 극한 대립의 혼돈 속에서 무조건 내가 옳다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절대가치의 추구의 허구로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려 부처님의 양극단을 여린 중도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나눔과 실천, 이타행 정신의 실천으로 불교의 정신인 포용과 관용을 보여줍니다.

기와지붕시공전문



본 제품은 여와 부와의 합일성으로 시공의 간편함과 능률의 향상을 높이고 규격의 노출이 크므로 하중의 부담을 극소화 하는 개량형 전통 한식기와입니다. 특성은 종설 폭우 한파의 약후후에 균열이나 동파없이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80년정도)인 제품이며 미려한 곡선의 연속으로 잔잔한 물결의 울동과 같습니다.



- 한옥기와
- 청기와
- 오지기와
- 한식기와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가장좋은 제품으로 가장 저렴하게

덕신기와는 불교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오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책임있는 신형기술로 각종 기와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자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불자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덕신기와 TEL 02)930-7811, 063)856-8562 H.P 011)302-7812 FAX 02)930-7812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 먹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소중함을 위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한국자연과학이 늘 함께 합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훈구 대표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 "함박재 농장" - KBS, MBC 뉴스 보도 -

가짜가 많고 오히려 많은 가시오가피에게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 야생보호식물입니다.